

“저기 새겨진 글들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는 걸까?”

러 가는 일이 망설여졌다.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작업장에 도착했다. 구석에는 거대한 몸집을 공처럼 구부린 삼수가 열심히 작업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다. 오늘은 진국의 작업대도 마련된 상태였다.

“택이 만들어놓은 거요?”
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눈동자에 뿌듯함이 잠시 비쳤다. 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눈동자에 뿌듯함이 잠시 비쳤다. 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눈동자에 뿌듯함이 잠시 비쳤다.

“그런데 삼수라는 사람 말이요. 어찌 저렇게 말이 없소?”
그는 무슨 그런 질문을 하는냐는 표정으로 진국을 쳐다봤다.
“하루를 꼬박 같이 있었는데, 삼수가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을 몰랐단 말이요?”
“아니. 그럼 병어리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요. 내 듣기로는 몽골군의 공격으로 삼수가 살던 마을에 큰 불이 났다더군. 마침 일이 있어 마을을 떠났다 돌아온 삼수가 불타는 집 안에 부모가 있는 모습을 본 거 요. 그런데 불길 이 워낙 세서 그 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소리를 지르다 목소리 를 거의 잃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목기 만드는 일을 해온 터라 각수를 지원하였는데 글을 쓸 줄 몰라 우리처럼 옷칠을 하게 된 것이지. 삼수가 말하는 걸 들은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난 한 번 도 없소.”

진국은 아무 말도 못했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단 말인가. 작업대로 돌아간 진국은 이미 일을 시작한 삼수를 착잡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그는 묵묵히 자기가 다 칠한 경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기 새겨져 있는 글들이 무슨 내용인지 조금이라도 아는 걸 까?” 진국은 조용히 삼수에게 물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기도 하는 거요?”
삼수는 대답 대신 경판을 들어 자신의 가슴에 넣는 시늉을 하더니 진국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마음으로는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글도 읽지 못하는 순진한 자가 그저 쳐다보기만 해도 경전을 읽은 것과 같은 공덕을 쌓는다고 생각하는 건가? 진 국도 경판을 내려다보았다.

그렇게 사흘이 흘렀다. 신년 행사를 맞아 작업량을 맞추기 위한 손길이 더욱 분주해졌다. 덩달아 진국의 마음도 바빠졌다. ‘새해 가 되면 큰 스님도 날 더 불쌍진 않으시겠지.’
그런데 신년 법회가 있기 이틀 전이었다. 한창 일을 시작하려는데 큰 소동이 일었다.

“아니. 이게 뭐야!”
작업장에 있던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이 되었다.
“아니. 소란스럽게 무슨 일인가?”
우두머리인 장인이 꾸짖는 투로 말했다.
“큰일 났습니다. 누가 경판의 글씨 부분에도 잔뜩 옷칠을 해놓았어요! 그것도 두 장이 나요!”

정말 그렇다면 낭패였다. 그 부분에 옷칠이 많이 되면, 나무의 틈을 막아 판각 본래 목재 중의 하나인 인쇄 자체가 힘들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장인이 그 질문을 던지자마자 사람들 모두의 시선이 옷칠 초보 인 진국에게 향했다. 삼수는 순간 그의 어깨가 움푹하는 것을 보았다. 장인은 진국을 향해 말했다.
“아무래도 진국이 자네가 작업한 것인지 일단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네.”



삽화 · 김흥인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진국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삼수가 그의 어깨를 내리 눌렀다. 덩치만큼 센 힘이었다. 삼수는 성큼성큼 경판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켰다.
“아니, 이보게. 자네가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가.”
삼수는 그래도 완강히 자신이 한 일이라는 손짓을 했다. 사람들이 웅성였다. 장인은 잠시 고민했다.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되었

면 수습부터 해야 할 일이었다. 한 시가 급했다. 다른 이들에게 영향이 미쳐서는 안 됐다. 장인은 입을 열었다.
“자네도 잘 알 것인데. 경판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가는지. 나무도 그냥 나무가 아니네. 3년을 바다에 담갔다 빼내고 그걸 그늘에서 말리고, 또 다시 소금물에 넣어 끓여낸 것 이네. 왜 그러는가. 나무의 틀어짐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부패를 막고 좀 같은 것들이 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네. 그럼 왜 이런 공을 들이는가. 그렇게 만들어진 판목에 새기는 것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 부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바로 우리의 정신이기 때문 일세. 정신이 틀어지고 부패하고 좀 먹어서는 안되기 때문이지.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옷칠이 아니네.”

웅성대던 작업장이 숙연해졌다. 진국 역시 익히 알고, 그리 생각해왔었다. 수련생 시절 자신 역시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을 만든다는 각오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던가. 그 시간만 3년 이었다.

장인은 삼수에게 경판을 건넸다.
“자신의 실수에 책임을 지게.”
진국은 그의 말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분명 자신이 실수한 일이다. 그러나 그걸 인정하고 나면, 섬을 떠날 명분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수를 바라보는 진국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밤, 결국 진국은 작업장 앞에 다시 와 있었다.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던 까닭이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조용히 문을 열었다. 삼수는 판각에 열중해 있었다. 진국은 등 뒤의 문을 맡음이 답았다. 삼수는 그제야 인기척을 느끼고 문쪽을 바라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말없이 마주쳤다. 진국은 삼수가 만들어준 작업대에 털썩 앉더니, 자신의 도구를 내려놓았다.

“아무리 솜씨 좋은 각수라 해도, 한 달에 두 장 새기면 다요. 그런데 그걸 혼자 할 생각 이요?”
삼수는 대꾸가 없었다.

“이게 다 뭐하는 거요. 경전을 새겨서 달라지는 게 뭐요. 전쟁은 멈추지 않고 있고, 고향을 잃고 부모를 잃은 고통도 사라지지 않지. 당신은 도대체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요? 왜 내 실수까지 당신이 대신 뒤집어쓰느냐, 이 말이요.”

그때, 여전히 묵묵하게 자신의 일만 하고 있던 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경판을 향해 경건하게 절을 올리더니 다시 앉아 판각을 시작했다. 진국은 삼수가 글을 모른다는 사실을 생각해 냈다.

“당신. 글도 모르면서 판각은 어찌 하는 거요? 글씨라는 것이 그냥 모양이 아니요. 획에도 흐름이라는 것이 있소. 게다가 경판의 글씨에는 한 사람이 쓴 듯 통일성도 있어야 하요. 내 말 듣고 있소? 아니, 말만 못 하는 게 아니라 귀도 먹은 거요?”

답답해진 진국은 삼수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판목에 새겨진 글자 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조각 솜씨가 놀라울 정도로 유려했던 것이다. 글자에서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살아있는 무엇이 느껴졌다.
“마음이요.”

진국은 깜짝 놀랐다. 삼수가 말을 한 것이다. 알아듣기 힘든 말 투였지만 분명 그의 목소리였다.

“평화가 올 거라는 믿음으로. 전쟁과 그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길 간절히 바라는 내 마음을 나는 믿소. 이런 마음에 힘이 없다면, 어떤 마음에 힘이 있겠소? 좋은 마음을 가지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믿으면 되는 거요.”

말을 마친 삼수는 숨을 한번 고르며 합장을 하더니, 다시 판각을 시작했다.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불빛에 반짝했다. 진국의 눈에는 그 반짝임이 삼수의 몸 전체를 감싸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진국은 조각칼을 꺼냈다. ‘이제 내일이면 새해인가?’ 진국은 합장을 한 후, 판각을 시작했다.

고지연 작가는?

동양 신화와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다. 그녀는 독특한 상상력과 섬세한 문체를 통해 다수의 드라마 대본과 시나리오를 집필했다.

백초스님의 **핵심래정택일지**
辛卯年 신묘년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신개념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매일 매일 운세 보는 법 공개!!
365일 매일 한장씩 매일운세!
한눈에 원리 볼 수 있는 래정비법!

4x6배판/ 칼라제본/ 456쪽/ 정가 20,000원
문고판(포켓용)/ 칼라제본/ 456쪽/ 정가 10,000원

白超律曆學堂
전화 [02]3667-4446, 010-3813-4443
입금 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임현주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뵈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귀신뵈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쫓쫓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①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②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白超律曆學堂
전화 [02]3667-4446, 010-3813-4443
입금 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임현주